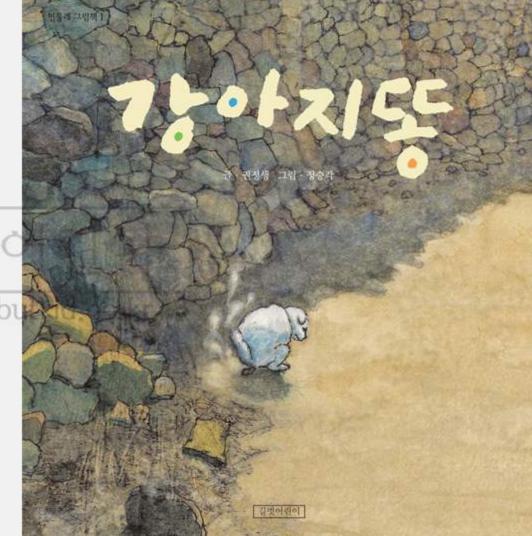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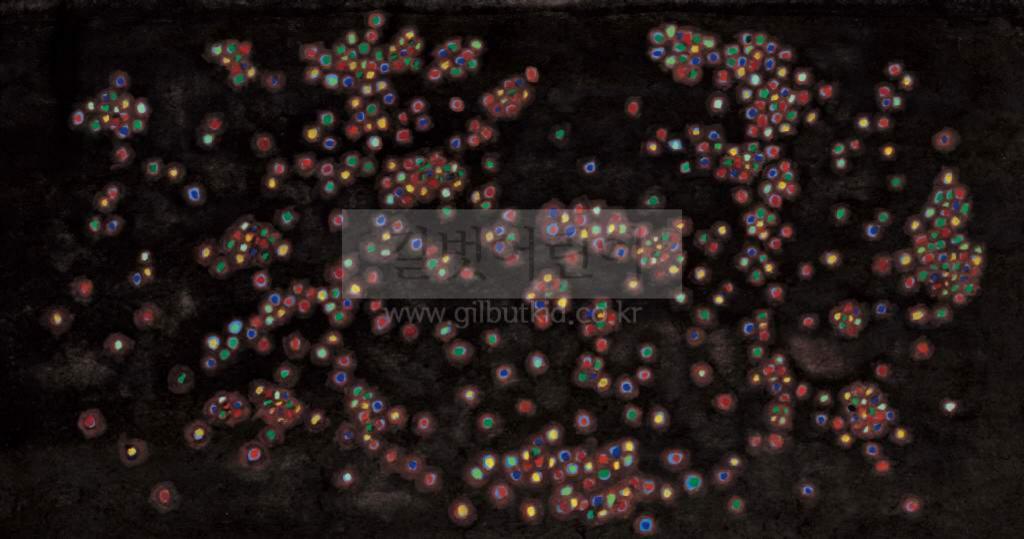
아름다운 책, 따뜻한 책, 길 벗 C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 벗어린이가 만들어 갑니다. www.gilbu







길벗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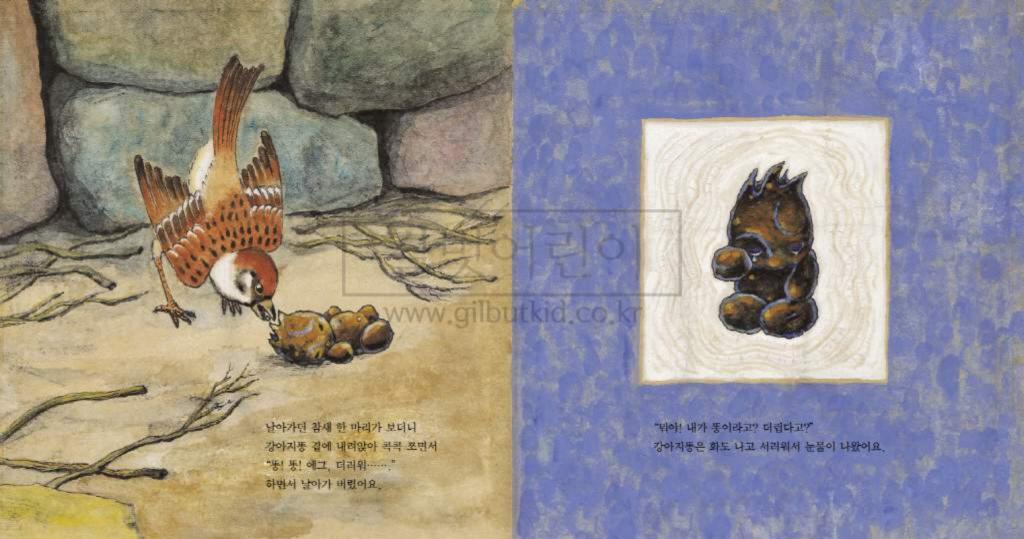
급 : 관용생기 그림 : 방송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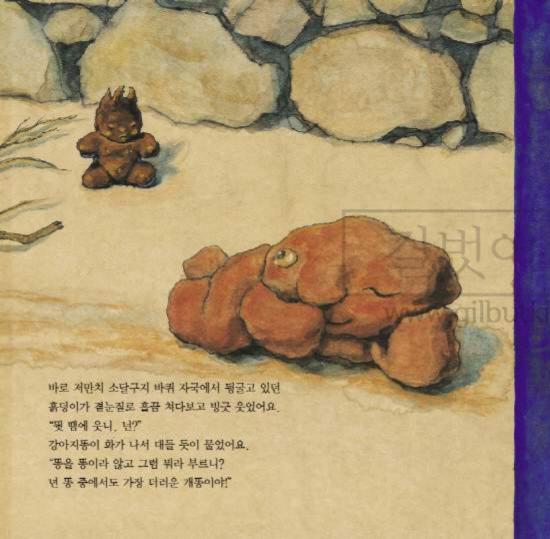
형관 1세 지난의 1996년 4월 25일 | 개설 1개 1대 대단기 1998년 7월 6일 개월 2만 20세 개반은 2008년 10월 20일 개나에 이용군 | 개나로 기반이네이스이 동작인으 에 10 1227호 | 집사의 1997년 11월 6일 대로 위한 031/955/351 | 최근 031/95/371 주는 411/76 경기도 마주시 교육은 문학의 규칙문의되보산생당자 511-2 공하여지 6000/41800 설립하다 112

> 값 ① 원생생, 그림 ② 정송자 1996 이 책의 무단 목에 및 관례를 급합니다. ISBN 978-89-86621-13-6-77818 ISBN 978-89-86621-14-17412

길벗어린이









강아지똥은 그만 "으앙!"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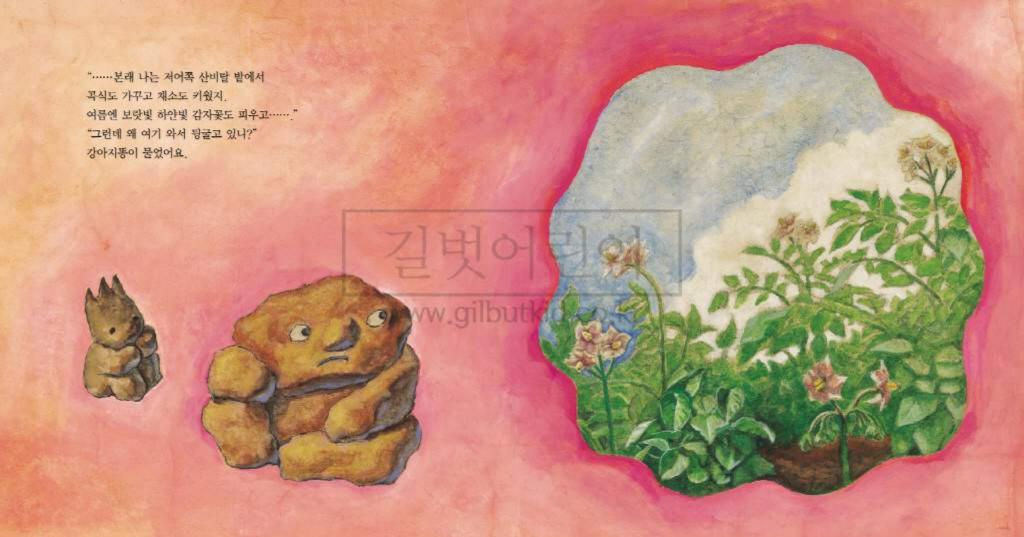
"강아지똥아, 내가 잘못했어, 그만, 울지 마." 흙덩이가 정답게 강아지똥을 달래었어요.

*.....

"정말은 내가 너보다 더 흉측하고 더러울지 몰라……." 흙덩이가 얘기를 시작하자.

강아지동도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귀를 기울였어요.











소달구지가 흙덩이를 싣고 가 버리자 강아지똥 혼자 남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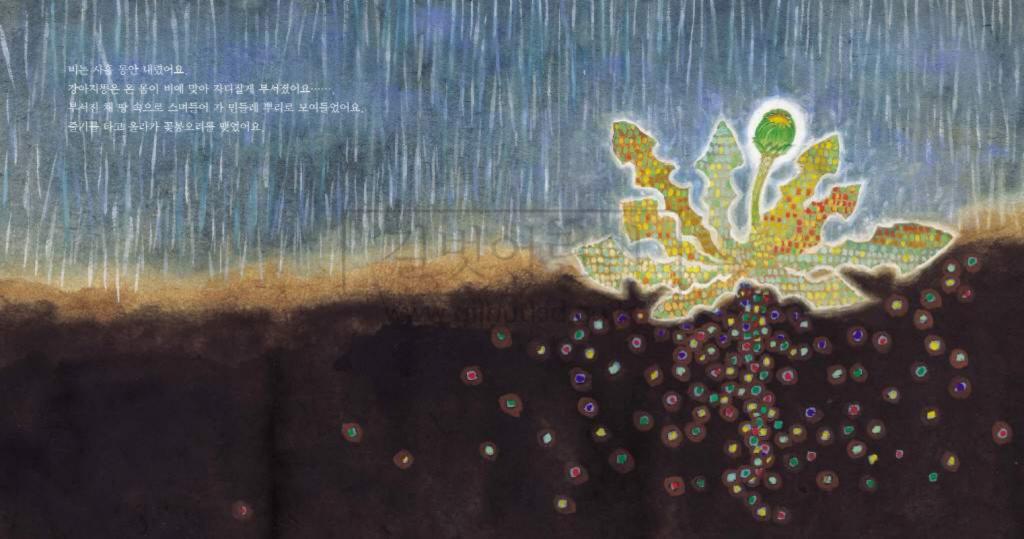
"난 더러운 통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파에도 쓸 수 없을 텐데……." 강아지통은 쓸쓸하게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이 세상 가장 낮은 곳 이야기

'강아지풍'은 누구 하나 거듭때므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만은 존재입니다. "아이고, 다려워." 하면서 제상 사람들이 다 의해 가는 머리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권청색 선생님은 이런 '제상에서 가장 소의된 존재, 비림받은 존재 에 관심을 거용했습니다.

얼마 전에 권청생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렇습니다. 어느 날이었던가, 선활님은 치마 밑에 비려진 강아지答이 비쯤 맞아 조문조문 그 덩어리가 녹아내리며 땀 속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강아지종이 스며 녹아내라는 그 염에서 인플레꽃이 피어나고 있다랍니다. 관점점 선생님은 그 모습은 보고 "아, 저거다!" 하면서 눈물을 흡리며 미친 밖을 내일 강합지동 아야기를 썼답니다. www.gilbutkid.

녹여 한 생명을 꽃비우는구나.' 권장생 산생님은 이 사실에 같은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눈물을 클리미 강아지통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독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남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역사였습니다. 일제 시민지 시대를 가지고 본단을 거치고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저례는 용제도 즉히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역사를 가진 우리 겨래에게는 서양과는 다른 등화 형식이 필요합니다. 황자나 공주가 아니라 "강아지똣"와 같은 운명을 살아야 했던 우리 겨래의 그 끈질긴 생명 의식을 이야기 속에 닦아 테야 합니다. 「참아짜통」야 될기 전하지 우리 어린이들은 대개 앞자나 궁주 이야기만을 즐겨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강아지통」의 세계는 이번 왕자나 공주가 사는 환상의 세계와는 전혀 만만인. 그 반대되는 세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급까지 아동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쯤에게 꿈을 심어 『준다면서 어딘제 현실과 동맹이진 환상의 세계만을 보여 주었는데, 관정영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비록 어둡고 수온 곳이지만 그 곳에도 왕자나 공주 못지않게 따뜻한 영혼음 간죄한 수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에게 보여 준 짓입니다. 「강아지통」이 우리 통화 APEN 회면을 가져오 작품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강아지동은 임으면 임유수복 뭔가 우리 토종의 맛이 남니다. 구수한 된장짜게 냄새가 납니다. 우리 나라 아동 문학을 대표할 만한 작품 "강아지통,이 우리 옛 그림의 이름다움을 살려 그림책을 그리는 정승각 선생님의 그림과 반나,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과으로 색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복(이동분학 명론기)

그림체 「강아지통」은 깊은 감동과 함께 보는 즐겨움도 줄 것입니다.



길벗어린이

급 - 권정생 (1937~ 2007)

1937년 일본 도교에서 화아난 관광명 산업급은 1907년 통화 '강아시종'으로 열간 《가두고 교육》의 WWW.gilbutkid.co.kr 에너희 선수 많은 역사를 살아 왔던 사업권의 용을 보았는 전송한 권로 어린이는 종론 부모남전에도 많은 사람은 역사를 살아 왔던 사업권의 용을 보았는 전송한 권로 어린이는 종론 부모남전에도 많은 사람은 받고 있습니다.

자은쪽으로는 '문화된 '장아지장」, '사과나무함 담님」, '레드님의 눈봄」, 소년 소설 '장된 언니」, '접착이네, 등이 있습니다. 사원 '이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산문원 '오콜럼이차면 행금면서」 창문 했으며, 그런데 '강아지장」, '오소리에 잘 못했고, '아기네구리네 음맛이」, '황소 아저씨」로도 넘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램 - 정송각

정승각 선생님은 1961년 중심목도 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눈흔에 살면서 자연과 어린이, 그리고 우리 옛 그림의 이름다움을 그림의 수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이란이들과 함께 '오간을 살린 그림들이'를 꾸존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으로는 '길아지통₂, '오소리내 점 첫밤₂, '목소 아저씨」, '하막나라에서 온 삼사리, 등이 있습니다.

